
저자 (Authors)	박원호 Won-Ho Park
출처 (Source)	콘크리트학회지 24(2) , 2012.3, 70-73(4 pages) Magazine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24(2) , 2012.3, 70-73(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콘크리트학회 Korea Concrete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NODE02260057
APA Style	박원호 (2012). 황룡사 구층탑, 삼국 통일을 이끈 솟대. 콘크리트학회지, 24(2), 70-7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20 10:1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황룡사 구층탑, 삼국 통일을 이끈 솟대



박원호 Won-Ho Park
(주)우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황룡사 구층목탑

‘너희 나라, 선덕여왕은 비록 도는 있으나 위엄이 없으므로 주변 구한(九韓)이 침범한다. 황룡사 호국룡은 나의 큰아들로 범왕(梵王)의 명을 받아 그 절을 보호하고 있으니, 네 조국 신라에 돌아가거든 그 절에 구층탑을 짓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신라를 둘러싼 이웃나라 구한이 항복하고 왕업이 길이 태평할 것이니라. 또한 탑을 세운 뒤로 팔관회(八關會)를 베풀고 죄인을 구해주면 외적이 감히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

이는 자장율사가 당나라 유학 시절, 태화지(太和池)라는 연못을 지나다가 신인(神人)으로부터 들은 말이라고 <삼국유사>에 나온다.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자장율사는 선덕여왕을 설득하여 황룡사 경내에 구층목탑을 짓게 된다. 구층목탑은 맨 아래층에서부터 일본, 중화, 오월, 탁라, 응유(백제?), 말갈, 단국, 여적, 예맥(고구려)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 탑은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효소왕 7년(698)에 벼락을 맞고 불탄 이래 다섯 차례의 중수를 거듭하였으나 1238년 몽고군의 침략으로 황룡사 가람 전체가 소실되는 참화 끝에 오늘날까지 황량한 빈 터만 남아 있다(사진 1~3).



사진 1. 황룡사지 - 중앙의 구층탑 자리, 한변이 22.2m, 면적 150평, 높이는 80m였던 목탑 터에 64개의 초석이 남아있다.

황룡사(皇龍寺)구층목탑 관련 연혁

1569년	황룡사 준공(17년 공사기간)
1643년	구층목탑 착공(선덕여왕 12)
1645년	구층목탑 준공
1660년	백제 멸망
1698년	벼락으로 소실 후 중수
1718년	낙뢰로 목탑 상당부분 훼손
1720년	목탑 중수 완료
1868년	탑이 진동하여 보수
1871년	재건축(경문왕 11)
1927년	탑이 북쪽으로 기울
1935년	신라 멸망
1954년	궁궐을 헐어 보수(고려광종 5)
1036년	낙뢰로 파손
1964년	고려조 다섯 번째 중수
1238년	몽고 침략으로 소실
1976~	황룡사지 발굴조사(~85)
1985년	



사진 2. 황룡사 조감도(경주시)



사진 3. 남산 탑골바위의 구층목탑 - 황룡사 목탑은 아닐까?

자유기고



| 백제 장인, 아버지(阿非知)

구층탑은 백제로부터 온 장인(匠人) 아버지가 목재와 석재로써 건축하였고, 신라에서는 이찬(伊飡) 용춘(龍春)이 총감독을 하며 소장(小匠) 200여명을 거느리고 2년여의 작업 끝에 탑을 준공한 것으로 전한다.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

6세기 초반부터 내내 백제와 신라는 양속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교류가 가능했을까? 왜 신라는 국가적 자존심을 구겨가며 백제의 장인을 요청했던 것일까? 또한 백제는 왜 적국 신라를 위해 초고층 탑의 신기술을 제공했을까? 혹시 아버지는 백제 의지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망명하듯 떠났던 건 아닐까? 말하자면 신라가 파견한 산업 스파이로부터 엄청난 대우를 약속하겠다는 유혹에 넘어갔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상상이 가능한 것은,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는 탑의 심주(心柱)를 세우기 전에 홍몽을 꾸고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610년~630년) 백제에는 익산의 거찰 미륵사가 건립되어 있었고, 또한 미륵사의 경내에도 거대한 목탑과 좌우 석탑도 함께 완공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아버지는 미륵사 창건에도 참여했던 백제 제일의 도목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중 구층탑의 준공을 끝내고 아버지는 연못에 빠져 자살했다는 전설이 있으나 과연 그랬을까? 혹시라도 더 황룡사 구층탑보다 더 높은 탑이 등장하지 않도록 암암리에 그를 없애버렸던 건 아닐까?(*역사란 어느 시대나 이긴 자에 의해 유리한 쪽으로 편집되는 경향이 있기에 이런 맹랑한 상상도 드는 것이다.)

한편, 당시의 역사 연표(年表)만 봐도 백제와 신라 사이가 얼마나 흥흥했는지 심분 알 수 있다. 선덕여왕 11년, 구층탑의 기공식을 일년 앞둔 시점에는 백제가 합천의 대야성(大耶城)을 혈전 끝에 점령했고, 탑이 착공되는 그해는 백제가 고구려와 합동으로 신라의 당항성까지 점령한다. 탑이 준공되던 직전에 신라는 김유신 장군의 반격에 힘입어 백제의 일곱성을 빼앗는다. 그 후 17년 뒤에는 나당연합군은 백제를 멸망시키기에 이른다.



| 망루인가, 위세인가

탑은 본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인도의 스투파로부터 유래했다고 한다. 하지만 탑과 비슷한 구조물은 아득한 원시시대에도 있었다. 일례로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벨탑이 있고, 동양에서는 고대 왕국의 성곽에 부속된 망루도 탑과 흡사한 구조물이다.

황룡사 구층탑에서도 각층이 신라 주변의 오랑캐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이 탑의 기능이 종교적인 의미 이외에 탑 위에 올라서 주변 적들의 동정을 살피는 망루의 성격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한편 어느 도시나 성채에 부속된 높다란 탑이 있을 경우, 지평선 위에 솟아있는 그 탑은 그 자체로 이정표가 되고, 등대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탑의 규모를 보고 절대 권력의 규모를 상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섣덕여왕은 여자인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주변 시선에 대해 뭔가 확실한 위엄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서라벌의 하늘 위로 우뚝 솟아있는 구층탑, 이 탑으로 인해 섣덕여왕은 자신을 알보던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삼국통일 확고한 의지까지 보여주었던 것이다. 능히 그럴 것이 여왕은 당대 최고의 참모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외교의 김춘추, 국방의 김유신 그리고 사상통일의 자랑울사 등이 있었다.



| 구층탑의 풍류

鬼拱神扶壓帝京 귀신의 도움으로 서라벌으로 다스리니
 輝煌金碧動飛蕩 휘황한 금벽이 용마루를 떠받치네
 登臨何啻九韓伏 올라보니 어찌 아홉 오랑캐만 다스리랴
 始覺乾坤特地平 비로소 알겠네, 천하가 태평한 이유를
 -일연 스님(一然 1206~1289)

일연스님은 탑에 오르며 금빛 찬란한 벽을 보았다고 한다. 아마도 구층탑에는 오방색으로 된 황홀한 단청과 벽마다 금빛 찬란한 벽화(탱화)는 부처님의 일생을 그린 팔상도일 것만 같다. 부처님께 귀의한 승려 신분인 일연일진대, 그 감동은 특별히 남달랐을 것 같다.

層層梯繞欲飛空 층층이 돌아 오르면 하늘을 날고 싶고
 萬水千山一望通 만 갈래 강물, 첩첩 산들이 한눈에 트이네.
 俯視東都何限戶 굽어보니 서라벌에 수많은 집들,
 蜂穴果蟻穴轉溟 벌집 같고 개미집 같이 아득히 보이네
 -고려조 김극기

탑 속의 계단은 중심을 빙빙 돌아 오르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 멀리 남천도 대천도 보이고, 서라벌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들, 남산도, 금오산도 단석산도 한 눈에 다 들어온다. 발아래에는 서라벌의 집들도 마치 벌집 같고, 개미굴 같다. 아마도 벌집은 반듯한 기와집일 터이고, 개미굴은 산기슭에 있는 초가집

